

출장보고서

I. 출장개요

1. 제목: 제2차 한러대화
2. 출장자: 원장 채욱
3. 출장기간: 2011.10.29.~2011.11.04. (5박 7일)
4. 출장지: 러시아 상트페트르부르크

II. 출장일정

일자	행선지	활동사항
10.29 토 17:45	러시아	인천-상트페트르부르크 이동
10.30 일	러시아	행사 준비
10.31 월	러시아	개막식, 분과 회의
11.01 화	러시아	분과 회의, 주제 발표
11.02 수	러시아	폐막식(VIP 참석)
11.03 목	러시아	한국 출발, 기내 1박
11.04 금 11:10	인천	서울 도착

III. 활동 내용

1. 제2차 한-러대화

□ 일시: 2011년 10월 31일~11월 2일

□ 장소 : 러시아 상트페트르부르크 Urasian Hotel

□ 주요 토론 내용

○ 경제와 통상 분과 특별세션 (법률 및 금융문제 진단) :

- 이팔성 회장의 두 가지 제안 :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대출로 인한 금융위기, 2011년 EU 재정위기로 인한 금융침체 등에서 보듯 위기의 진원지가 아님에도 경제의 펀더멘탈과 관계 없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되고 이것이 다시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이에 따라 개방경제를 가진 신흥국의 한계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금융협력 방안으로 한러간 통화스왑, 은행의 상호진출을 통한 공동 금융안전망 구축이 논의됨.
- 러시아의 조세제도 개편에 대하여 양도세, 에너지절약 및 대륙붕개발에 세제혜택, 2중 과세 방지에 관한 설명이 있었고, 향후 양국 관세청 및 국세청 간의 협력 가능성도 언급됨.
-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자문 시 필요한 판례 및 러시아 측 전문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양국 법률전문가그룹의 협력체를 구성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인터넷을 통하여 전부 공개된다는 점을 밝히고 러한협작 법무법인 설립에 대한 제안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현재로는 법률시장이 개방되지 않아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한편 경제특구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한국기업이 러시아 진출 시 자료작성의 방대함, 언어 문제 등 계약상의 어려움으로 러시아 진출에 제약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이에 대하여 영어를 잘 하는 컨설팅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양국간에는 무차별적인 보편적 접근이 아니라 차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양국간의 관계를 빠른 시일 내 확대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증권분야 협력방안에 대하여, 국부펀드, 연금기금 등을 이용하여 양국간, 특히 러시아의 한국 간접투자를 하는 것이 향후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러시아 펀드의 우리은행 민영화 참여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됨.

o 경제와 통상 세션 :

- 러일전쟁중 동해에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인양, 울릉도에 추모비 건립 등을 추진하여 한-러 동반자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러시아측 제안: 대륙붕 석유, 가스 개발과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인력교육기관 설립이 필요. 이러한 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한국의 기업 또는 기관과의 협력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한러간 에너지 플랜트 분야, 신재생에너지 분야, 미래형 도시개발 분야, 첨단 물류기지 건설 분야 등에 대한 협력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비롯하여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밝히며 에너지, 연료, 자동차, 철도, 항만, 통신망, 송전망 구축의 세부분야에서 한러간 협력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러시아와 한국 간에 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 협력을 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러시아의 GLONASS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위치추적 시스템을 개발하여 한러공동사업을 추진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o 남북러 가스관 세션 :

- 이유신 영남대 교수 : 남북러 가스관은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통과국인 북한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함.
- 러시아 가스프롬 측은 우크라이나 가스관은 본래 한 나라였다가 두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생기는 문제로 많은 불안 요인을 갖고 있었지만 남북러 가스관은 처음부터 국제가스관으로서 법적인 토대 위에 건설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강조함.
- 러시아 가스프롬은 가스관 사업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는데, 건설기간은 2013년 9월 ~ 2016년 말까지이고 공급개시 년도는 2017년으로 발표하였음.
- 윤성학 발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o 전체 토론 및 결과 :

- 제 2차 한러대화 연례 포럼이 양국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한러대화의 장기적 발전 기반이 보다 공고해졌음. 금번 포럼에 참가한 인사들은 한러대화가 양국 민간교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한러대화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양국 정상들이 연례포럼에 참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였음.
- 차세대 분과에서는 한러대화 참석자들은 한러 차세대 리더, 대학생 및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며, 이를 양국 정부 간 공식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하였음.
- 정치와 국제관계분과에서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보는 북한문제의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내년 개최 예정인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에 북한을 초청하는데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한러 양측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확보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위해 한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동북아원자력다자협의회 구성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였음.
- 문화와 예술 분과에서는 러시아와 한국의 고전영화 교류전을 정례화하는 등 양국 영상문화 발전을 검토하고, 양국 작가 및 문화예술인을 상호 지원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음.
- 교육과 과학분과에서는 2013년 러시아에서 열릴 예정인 '전세계 한국학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기로 하고 러시아의 스콜코보와 한국의 대덕연구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한러 공동 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설립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음.
- 언론과 사회분과에서는 한국과 러시아의 언론 미디어가 공유할 수 있는 '정보 및 이미지 뱅크'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 미디어산업과 러시아의 중앙 및 지방 미디어 산업의 콘텐츠 교류, 공동제작 확대를 모색하기로 하였음.